

호남 KTX 개통 1주년 기념 '교통, 지역, 경제 영향과 향후 전망' 공동 세미나

# 방문객 증가로 전북경제 성장 기여

고용 2600명·680억원 지역 소득 발생 효과... 역세권 개발·맞춤형 관광서비스 필요

KTX 호남선 개통이 전북 경제 성장에 선순환 효과를 발생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윤한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높이기 위해 역세권 중심 개발 및 맞춤형 관광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국교통연구원(원장 이창운)과 전북연구원(원장 강현직) 등은 31일 호남 KTX 개통 1주년을 기념한 '교통, 지역, 경제 영향과 향후 전망'을 주제로 공동세미나를 개최해 호남 KTX 개통 이후 전북지역(전주역, 익산역 등) 총통행량이 30~50% 증가했고, 이를 이용한 방문객이 소비로 2,595여 명의 고용 및 679억원의 지역 소득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전북연구원이 분석한 전북도 주요 KTX역의 이용객 변화는 익산역이 136만명에서 212만명(55%) 가장 많이 증가했고 그 뒤를 전주역(65만→102만)이 55.4% 늘었으며 정읍역(41만→54만), 남원역(15만→23만)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4개 지역의 전체 통행량을 1일 기준으로 볼 때 1,329명/일 증가한 것이다.

특히 이들 방문객은 타 지역인이 전북을 찾는 경우가 전북도민이 타 지역으로 가는 경우보다 많아 호남 KTX의 순기능이 더 크게 작용했다고 평가된다.

자료에 따르면 호남 KTX 이용객의 70.8%는 외지 방문객이고 그 중 수도권 거주자는 75% 수준인 것으로 알



한국교통연구원과 전북연구원은 도청 중회의실에서 2016년 4월 2일 개통된 호남고속철도가 국가교통, 지역발전 및 경제에 미친 영향을 종합점검하는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려졌다.

KTX를 이용한 전북 방문객의 국내 소비활동도 활발했던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이들 방문객은 타 지역인이 전북을 찾는 경우가 전북도민이 타 지역으로 가는 경우보다 많아 호남 KTX의 순기능이 더 크게 작용했다고 평가된다.

자료에 따르면 호남 KTX 이용객의 70.8%는 외지 방문객이고 그 중 수도권 거주자는 75% 수준인 것으로 알

지역 방문객의 증가와 이에 따른 소비활동 발생이며, 이는 지역 내 산업의 생산 증가에 영향을 주어 가계 소득 및 정부 세수 증가 → 가계 소비 및 투자 증가 → 산업 수요 추가 발생 → 산업 생산 증가로 이어지는 선순환 효과를 발생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호남 KTX를 이용한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높이기 위해 역세권 중심 개발 및 맞춤형 관광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전북연구원 관계자는 "KTX 이용객의 특성은 당일 왕복 성격이 강한 업무/출장 비율이 높기 때문에 역을 중심으로 당일/야간 관광 상품 및 체류형 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이들의 소비를 유도해야 한다"며 "전북 음식에 대한 이미지 및 만족도가 높아 향후 음식관광 수요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들을 위한 종합적인 관광서비스 질 향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영수 기자

## "2015 국가재무제표 오류 125건"

감사원 "부채 4000억원 과소 계상"

2015년도 국가결산보고서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원 감사에서 125건의 오류 사항이 확인됐다.

감사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5회계연도의 세입·세출 결산, 국가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등에 대한 감사 결과와 국가기관에 대한 감사결과를 수록한 결산감사보고서를 작성해 국회에 제출했다고 31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국가 재무제표에서 확인된 오류 사항은 모두 125건. 자산·부채 관련 오류는 7조원 규모, 재정운영 관련 오류는 4조8000억원 규모였다.

특히 부채의 경우 4000억원이 과소 계상, 재정운영결과는 2000억원이 과소 계상돼 있었다.

오류사항 수정 후 국가 부채는 1284조8000억원에서 1285조2000억원으로 늘었다.

이밖에 국유재산은 1202억원 과대 계상, 물품은 194억원 과소 계상, 채권은 1097억원 과대 계상됐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52개 중앙관서의 성과

보고서에서 성과계획 분야 44건, 성과보고 분야 45건 모두 99건의 지적 사항을 발견했다.

성과계획 분야에서는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임의로 설정하거나 낮게 설정한 사례가 21건 지적됐다.

또 성과지표 중복 설정하거나 단위사업을 예산과 연계하지 않은 사례도 지적됐다.

성과보고 분야에서는 성과지표 목표치와 측정방법 등을 사후에 임의로 변경한 사례가 23건 적발됐다. 또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했음에도 달성한 것으로 보고한 사례도 다수였다.

감사원은 기획재정부가 제출한 국가결산보고서 등을 검사, 2015 회계연도 세입은 328조1284억원, 세출은 319조3907억원, 세입·세출은 2조8139억원으로 확인했다.

국가채무는 556조5000억원으로 전년도의 503조원에 비해 53조 5000억원 증가했다. 재무제표순자산은 571조 280억원이었다. /박용주 기자

### 해수부, 여름 해양안전대책 시행

해양수산부는 여름철 태풍·장마 등에 대비하고 선박사고와 해양수산시설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여름철 해양안전대책'을 6월부터 3개월간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최근 5년간 여름철에 발생한 해양사고는 모두 2200여 건에 이른다. 여름철은 다른 계절보다 해양사고가 많이 발생한다.

해수부는 안전대책 운영기간 중 선박 종사자에 기상악화 시 피항 요령과 승객안전관리 요령 등을 집중 교육할 예정이다.

또 선박 운항유·냉각수를 적시에 보충토록 안전점검·지도도 강화하고 무리한 조업과 운항을 자제토록 하는 등 예방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국민들 상대로 안전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활동도 진행한다. /박용주 기자

## 전주시, 내년 국가예산 확보 발 빠른 대응

제20대 국회의원 보좌진과 정책담당회... 현안사업 94건 해결 관심과 지원 요청

전주시가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발 빠른 대응에 나섰다.

전주는 31일 한국전통문화전당에서 지난 30일 임기가 시작된 제20대 국회의원 보좌진과의 간담회를 갖고 2017년도 국가예산 확보와 주요 현안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한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시는 이날 간담회에서 국가예산 대상사업 94건에 대해 부처별상황을 일일이 설명하고 6월 1일부터 시작되는 기획재정부의 예산심의 단계에서 정지권과 공조체계를 갖춰 적극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각 부처별 정부예산 편성과정

에서 시 요구액에 비해 과소 반영된 전주생물자원 보전시설 설치와 외규장각 의궤 반차도 한지공예 재현 및 해외전시 등은 기획재정부 및 국회단에서 증액을 요청했다.

또 공모가 진행 중인 서노송예술촌 프로젝트와 전주역사이클센터 설치사업도 기재부에서 예산이 삭감되지 않도록 반영해줄 것을 건의했다.

또한 대규모 국가예산 투입의 토대가 되는 전주 탄소섬유 국가산업단지 조성, 메가-탄소밸리 조성, NPS 복지플렉스 센터 건립, 소리창조플러스터 조성 사업에 대한 필요성과 당위성을 강조하고 예비타당성 조사가 통과될

수 있도록 지원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한국은행 전북본부의 '화폐수급업무' 재개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지역인재 35% 의무채용 법제화 ▲전주역사 전면개선 ▲수서발 고속철도 개통시 전라선 증편 등 주요 현안사업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건의했다.

시 기획조정국 관계자는 "정부의 SOC·신규사업 연계, 부처 재량지출 10% 의무사각 등 국가예산 확보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예산편성 순기보다 한발 앞선 대응으로 더 많은 국가예산을 확보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재 기자

## '호흡기질환 제품유효성 평가센터' 현판식

안전성평가연구소 전북본부

안전성평가연구소가 정부출연 연구기관 최초로 보건복지부가 공모한 보건건의료 T2B 기반구축사업에서 '호흡기질환 제품유효성 평가센터'로 선정된 데 따른 현판식이 5월 31일 전북본부에서 있었다.

현판식에는 김생기 시장과 안전성평가연구소 정문구 소장,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제약태 박사, 관련 학회 연구원 100여명이 참석했다.

보건건의료 T2B(Technology to Business) 기반구축사업은 기초연구성과가 제품화로 이어지지 못하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질환 중심의 글로벌 수준의 개방형 유효성평가 센터를 구축하고, 국내외 제약사에 전문적인 유효성평가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에 따르면 안전성평가연구소 컨소시엄(안전성평가연구소, 전북대병원, 원광대병원)은 지난 4월초 최종 선정(과제 책임자 이규홍 센터장)돼 2016년도 보건건의료 T2B 기반구축 사업 중 호흡기질환 분야를 담당하게 됐으며, 보건복지부로부터 5년간 국비 70억원을 지원받게 됐다.

안전성평가연구소는 2002년 1월 설립 이후 신약개발의 미드필더를 자처하며 글로벌 수준의 비임상 약리 및 독성평가를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연구기술들을 발전시켜 왔다.

전북본부의 흡입독성연구센터는 호흡기질환 치료제 개발과 흡입의약품의 흡입평가모델 구축 및 호흡기질환의 약효평가, 흡입의료기구에 대한 유효성평가를 수행할 수 있는 국내 유일의 기관으로 이번 유치로 독성시험부터 비임상 유효성평가까지 원스톱 연구 체계가 구축됐다.

정문구 소장은 "8년여에 걸쳐 꾸준히 개발해온 유효성평가 모델이 인정받게 되어 자긍심을 느낀다"며 "우리 연구소가 국내 개발시장에 크게 기여하는 물론 글로벌 제약사들과의 파트너십을 이끌어내 호흡기 질환 제품 개발을 견인하는 세계적인 기관으로 성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2부 행사로 앞서 기 구축 중인 인제대 백병원의 안과질환, 서울 아산병원의 항암질환, 서울 성모병원의 관절·면역질환 관계자들이 참석해 관련 전문질환 심포지엄을 가졌다. /정음=김대환 기자

**주간(주말), 야간면접 특강**

**스피치 · 시낭송 · 면접 · 웃음치료 · 매직(마술)**

◎ CEO, 2%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귀하게 날개를 단다  
◎ 감성과 파워 스피치로 언력(言力)의 시대에 성공의 날개를 단다  
◎ 소통과 감성의 시대 필수과목을 이수해야 날개를 단다

〈강의특징〉

- 40년 지도경험과 노하우로 알차고 재미있는 강의
- 저렴한 교육비로 주1회 교육
- 각종대회 출전지도 (대통령상 3회 국무총리상 2회 배출)
- 각 분야 전문 강사가 지도함
- 차량운행(유치부, 조동부)

〈김양욱 전담교수 소개〉

- 전주교육대학교 겸임교수
- 전북대 교양학부 (토론과면접) 전담교수
- 면접지도 전북1호 강사
- 한국음변인협회 전북회장
- 한국스피치&리더십컨설팅 대표
- 스피치&리더십 경력 40년 강사 및 스피치 칼럼리스트
- 저서: "365인스피치커뮤니케이션 '나를 세운 말, 말' '스피치노하우' 등

※부별: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대학 일반부, 면접지도, 개인지도, 주말반

**(사)한국음변인협회, (사)한국음변단체총연합회 부설**

**한국 스피치 & 리더쉽 컨설팅**

**한국 스피치 & 면접 아카데미**

위치: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번지(시청옆 대우빌딩 건너편 5층)  
상담전화: 285-6676, 231-6669, 010-7304-5665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www.ijmaeil.com**